대담한 외관, 강력파워… 美고객 취향저격 텔루라이드

현대-기아차, 신형모델 대거 공개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 둔화 속 신형 모델로 美시장 공략 강화

K9 등 양산차·튜닝차 23대 전시 경주차 '벨로스터 N TCR' 등 첫 선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 마케팅 총괄 딘 에반스 부사장(CMO), 브라이언 헤르타 브라이언 헤르타 오토스포츠팀 총괄(왼쪽부터)이 벨로스터 N TCR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2019 북미 국제 오토쇼(2019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에 전시된 커스터마이징 버전 텔루라이드의 모습.

현대·기아자동차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개막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올해 신형 모델을 대거 공개하고 미국 시장 판매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난해 세계 자동차 시장이 보호무역 등의 여파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신차 출시를 통해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5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텔루라이드를 비롯해 스팅어, K9, 스포티지 등 양산차와 튜닝카인 '스팅어 SEMA 쇼카' 등 차량 23대를 전시했다.

마이클 콜 기아차 미국판매법인(KMA) 수석부사장은 "텔루라이드는 대담한 외관과 고급스러운 내장, 강력한 주행성능 등을 모두 갖춘 그야말로 다재다능한(versatile) 차"라면서 "텔루라이드가 미국 고객들에게 커다란 매력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는 텔루라이드는 상반기 북미 지역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텔루라이드는 대담한 박스 형태를 기반으로 직선을 강조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기아차 특유의 '호랑이 코' 그릴을 전면에 크게 배치했고 오프로드 주행 때 엔진 하부를 보호하는 장비인 스키드플레이트를 통해 아웃도어 SUV의 이미지를 갖췄다.

텔루라이드는 전장 5000㎜, 전폭 1990㎜, 전고 1750㎜의 크기로 최대 8인승까지 운영된다. 가솔린 3.8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고출력 295마력, 최대토크 36.2㎏f·m의 동력 성능을 낸다.

특히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에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 했다. 먼저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에 고속도로주행보조(HDA), 전방추돌경고(FCW), 전방/후측방/후방교차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차선유지보조(LKA), 후측방모니터(BVM), 안전하차보조(SEA) 등 다양한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또 주행모드에 따라 엔진 토크·변속과 연동해 좌우 바퀴 전·후륜의 동력을 가변제어하는 방식을 적용 ▲'에코'와 '스마트' 모드에서는 전륜에 모든 동력을 전달하고 ▲'컴포트'와 '스노우' 모드에서는 80%의 동력은 전륜으로, 20%의 동력은 후륜으로 전달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전후륜 각각 65%, 35%의 동력을 전달하도록 하는 등 아웃도어 SUV다운 차별성을 갖췄다.

현대차는 자사의 '벨로스터 N'을 기반으로 한 고성능 경주차 '벨로스터 N TCR'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으며 양산차급인 '엘란트라 GT N Line'로 고성능차 기술력을 과시했다.

현대차의 고성능 N TCR은 양산차 기반 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투어링 카 레이스(TCR)' 대회를 위한 경주차로 독일 알제나우에 있는 현대모터스포츠법인(HMSG)에서 개발됐다. 현대차가 'i30 N TCR' 차량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한 고성능 경주용 차량 벨로스터 N TCR은 최고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45.9㎏f·m를 발휘하는 2.0 터보 엔진과 6단 시퀀셜 변속기가 장착됐다.

TCR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공인 차량 벨로스터 N TCR의 출시로 지난해에는 i30 N TCR 차량으로 대회에 출전한 커스터머 레이싱 팀들이 올해는 벨로스터 N TCR 차량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엘란트라 GT N Line은 기존 차량에 고성능 모델의 스포티한 디자인 요소와 튜닝을 통한 한층 업그레이드된 동력 성능을 적용한 모델로 1.6 터보 엔진이 적용돼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f·m의 성능을 발휘한다.

또 현대 스마트 센스의 '후측방 충돌 경고 시스템(BCW)',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전방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LKA)' 등의 기능을 모든 모델에 기본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엘란트라 GT N라인은 미국 시장에 1월 중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북미서 불꽃 'SUV' 경쟁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9 북미 국제 오토쇼(이하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개막했다. 올해 디트로이트 모터쇼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선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텔루라이드·익스플로러 등 주목

기아차는 대형 SUV 텔루라이드를, 포드는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를 공개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는 전장 5000㎜, 전폭 1990㎜, 전고 1750㎜의 크기로 최대 8인승까지 운영된다. 가솔린 3.8 엔진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고출력 295마력, 최대토크 36.2㎏f·m의 동력 성능을 낸다.

해외 업체 중 포드는 9년만에 완전변경된 대형 SUV 익스플로러 6세대 모델을 선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올 뉴 익스플로러는 경량화됐으며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해 라인업을 늘렸다. 특히 강력하고 효율성 높은 3.0리터의 에코부스트 엔진을 탑재해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으며 동시에 오프로드 기능도 향상시켰다.

더욱 넓어진 실내 공간에는 10.1인치 세로 터치스크린이 새롭게 탑재됐으며,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인 포드 코파일럿 360 및 교통 상황, 풀 스크린 지도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워진 지형 관리 시스템도 적용해 7개 주행 모드를 제공하며, 지형 관리 시스템은 메인 콘솔에서 다이얼로 쉽게 제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 포드는 경찰차 모델 '올 뉴 폴리스 인터셉터 유틸리티'와 프리미엄 7인승 대형 SUV '올뉴 링컨 에비에이터', 스포츠카 '올뉴 포드 머스탱 쉘비 GT 500'도 공개했다.

기아차 텔루라이드

인피니티 미래 전기차 QX 인스퍼레이션 콘셉트카

◆인피니티 미래 전기차 공개

인피니티는 콘셉트카 준중형 SUV QX 인스퍼레이션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인피니티는 매력적인 주행 성능과 뛰어난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사륜구동(AWD) 방식의 QX 인스퍼레이션은 새로운 전동차 플랫폼과 기술이 인피니티의 현대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며, 인피니티 최초 순수 전기 양산차의 직접적인 선례로 남게 된다. 또 선과 선 사이 공간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QX 인스퍼레이션의 내부는 일본의 정교한 감각을 살린 소재를 선택해 전통적인 수작업 기술로 완성했다.

신규 전기차 플랫폼은 널찍하고 라운지 같은 실내를 구현했으며, 안락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들을 통합하는 동시에 운전자를 보조하고 탑승자를 주변 세상과 연결시켜 눈길을 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코나·G70 '북미 올해의 차' 2관왕

유틸리티 부문 '코나'
미래지향적·강인한 디자인 호평
최고의 주행성능·안전기술 탑재

승용 부문 'G70'
최신 트렌드 반영된 고급감 호평
고급차 격전지서 브랜드 위상↑

현대자동차가 세계 3대 모터쇼 중 하나인 '2019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가 올해 브랜드 사상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 2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기록했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센터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코나가 유틸리티 부문 '2019 북미 올해의 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G70도 승용 부문 '2019 북미 올해의 차'에 나란히 올랐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섰다는 점에서 향후 현대차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올해의 차는 미국·캐나다에서 활동하는 60여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단(Juror)이 해당 연도에 출시된 신차들 중 승용차·트럭 및 유틸리티 총 3개 부문의 최종 후보를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현대차 보유 모델이 없는 (픽업)트럭 부문에선 '닷지 램1500'이 수상했다.

현대차 코나와 G70는 2009년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BH)와 2012년 현대차 아반떼에 이어 한국차로는 세 번째로 동시에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됐다.

1994년 북미 올해의차 선정 이후 26년간 2관왕을 차지한 브랜드는 2006년 혼다, 2010년 포드, 2014년 쉐보레에 이어 올해 현대차(제네시스)가 4번째다.

2019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에는 현대차 코나를 비롯해 아큐라 RDX, 재규어 I-페이스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코나는 급성장 중인 SUV 시장에서 경쟁차를 제치고 '북미 올해의 차'에 뽑혔다.

현대차 코나.

코나는 ▲미래지향적이고 강인한 느낌을 강조한 차세대 SUV 디자인 ▲운전자를 배려해 최상의 안락함을 구현한 실내 ▲동급 최고 수준의 주행성능 ▲첨단 주행 안전 기술 적용 등이 호평을 받았다.

현대차가 2017년 6월 최초로 공개하고, 미국에서 지난해 2월부터 판매 중인 코나는 뛰어난 상품성으로 국내외 고객들에게 인정 받고 있다. 각종 디자인 상도 휩쓸고 있다.

이와 함께 2015년 출범한 제네시스 브랜드는 3년여만에 '북미 올해의 차'를 수상했다. 고급차 최고의 격전지인 미국에서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번 승용 부문에는 제네시스 G70를 비롯해 혼다 인사이트, 볼보 S60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 그 중 G70가 최종 승자의 자리를 차지했다.

제네시스 G70는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중형 럭셔리 세단'으로 ▲기품 있고 강인함이 느껴지는 외관 ▲품격과 기능성을 갖춘 실내 ▲소프트 터치로 마감된 소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고급스러운 컬러 등으로 고급감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시스가 2017년 9월 국내 출시 후 미국에서 지난해 9월부터 판매중인 G70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공을 세우고 있다.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G70.